

신혜선, 서른에 활짝 피다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열연 '황금빛 내 인생' '비밀의 숲' 등 인기 작품마다 팔색조 연기로 매력 뽐내

우리 나이로 서른을 맞은 배우 신혜선이 작품마다 다양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팔색조 매력을 뽐낸다.

지난해 '비밀의 숲' 속 의욕 넘치는 영은수 검사와 시청률 45% 벽을 갠 '황금빛 내 인생' 속 사연 많은 서지안으로 사랑받은 그는 이번에는 SBS TV 월화극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서 서른 먹은 열일곱 소녀로 단숨에 변신했다.

신혜선은 이 드라마에서 교통사고로 코마에 빠졌다가 13년 만에 깨어난 우리리를 자신만의 색깔로 연기한다. 신혜선은 열일곱과 서른 사이의 13년 간극을 넘나들며 극의 중심을 잡는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다 갑자기 중졸 백수 서른이 되어버린 우리리의 혼란스러움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게 표현한다.

지난 30일 방송분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 나이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우리리의 모습을 세상 물정 모르는 열일곱과 현실을 깨닫게 되는 서른의 상반된 모습을 적절히 조절했다는 평을 듣는다.

또 성인 연기가 아직 열일곱에 머무른 정신상태를 표현할 때 자칫 잘못하면 과장되거나 유지해 보일 수 있지만, 신혜선이 연기하는 우리리는 밝고 발랄하되 지나치지 않는다.

이미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과 '아이가 다섯'에서 본인에 어울리는 역할로 시청자한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신혜선이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혜선 소속사 YN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배우 자신이 이번 작품을 선택할 때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신혜선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전작 캐릭터가 그렇게 밝은 캐릭터는 아니었다. 우리리는 가장 신혜선에 어울리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며 "조성희 작가의 드라마 톤을 신혜선이 잘 파악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혜선은 사실 '중고 신인'이다. 드라마 '학교 2013'(2013)과 '고교처세왕'(2014), '그녀는 예뻤다'(2015) 등의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단역으로 출연한 영화 '검사외전'에서는 강동원과의 키스신으로 화제



가 됐다. 비중이 작은 역할도 가리지 않고 출연해 연기력을 다진 경험이 현재 빛을 발한다.

특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를 통해 첫 지성과 로맨스극 주연으로 나선 신혜선의 성격과 꼭 들어맞는 작품이 나타난 것도 이같이 준비된 배우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 할 만하다. 같은 나잇대에 뛰어난 연기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배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혜선의 연기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대본은 '그녀는 예뻤다'의 조성희 작가, 연출은 '피노키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조수원 PD가 맡은 만큼 극 자체로도 호평을 받는다.

극 중에서는 우리리가 자신이 학창시절 좋아한 여학생인 줄 모른 채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상과 단절돼 산 공우진(양세종 분)이 우리리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미스터리도 빠지지 않았다. 사고가 나기 전 부모를 잃은 우리리를 자식처럼 키워준 외삼촌 부부는 13년이 지나 깨어나자 사라졌다. 13년 동안 우리리의 병원비를 누가 냈

는지조차 오리무중인 상황이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또 열일곱 우리리가 키운 강아지 덕구의 귀여움도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한다.

이런 여러 요인에 힘입어 시청률도 상승세다.

지난 30일 방송된 5-6회 시청률은 7.6-8.8%로 집계돼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1-2회는 5.7-7.1%, 3-4회는 6.9-8.2%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전작인 '기름진 멜로'의 부진을 완벽하게 떨쳐낼지 주목된다.

다만 일부 설정과 전개는 조성희 작가의 전작 '그녀는 예뻤다'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창시절 자신이 좋아한 여학생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설정과 어릴 적 바이올리니스트 꿈나무에서 지금은 중졸 백수 처지가 돼 버린 여주인공 처지가 '그녀는 예뻤다'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설정 덕분에 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더 극적으로 그려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연합뉴스

이상화·이용대 인도양 접수하러 뜬다

'정글의 법칙' 병만족 합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화,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SBS TV 예능 '정글의 법칙'에 뜬다.

SBS는 오는 9월 중 방송할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에 이상화, 박윤기, 이용대가 출연한다고 1일 밝혔다.

SBS는 "정글의 법칙'에 다양한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국가대표 출신들이 대거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대표했던 특급 스포츠 스타들이 만큼 '정글의 법칙'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파타고니아 편에서 맹활약한 배우 조재운을 비롯해 김성수, 이유비, 정겨운 등도 출연한다. 모델 문가비와 작곡가 돈스파이크, 방송인 붐, NCT 루카스, 위키미키 김도연, 정세운, 비투비 민혁, 유엔비 이준영, 모모랜드 연우도 폐기 넘치는 활약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이상화·이용대

김영옥·고두심 40년 우정 과시

'할머니네 똥강아지'서 특별 손님으로 출연

61년 차 배우 김영옥과 47년 차 배우 고두심이 40년 넘게 이어 온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다.

MBC TV는 오는 2일 밤 8시 55분 방송할 '할머니네 똥강아지'에서 할머니 김영옥의 아주 특별한 손님맞이가 공개된다고 1일 소개했다.

순님의 정체는 바로 '국민 엄마' 배우 고두심. 다양한 드라마에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둘은 평소에도 자주 만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집안 속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 정도로 친밀함을 자랑하는 두 사람은 이날도 서로 선물과 요리를 나누며 우정을 자랑했다.

또 이날 공개된 예고편 속 고두심은 김영옥에게 미국에 있는 7살 쌍둥이 손자 사진을 자랑하며 연락없는 '손자 바보' 할머니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시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이웃집 찰스(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끝까지 사랑(재) 4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0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30 영상앨범 산(재)	30 UHD 부잣집 아들(재)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40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0 판다랑 40 꾸러기 식사교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10 가짜 낭만 고학(재)	00 뽀뽀뽀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파파톡 2 15 도봇 V 30 여름특선 만화 <코딩배틀네오봇 마스터>	00 5 MBC 뉴스 20 할머니네 똥강아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TV인사이드	55 할머니네 똥강아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숲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 우리 문화 이야기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 스페셜	10 김여준의 불력하우스 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스포츠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뽀뽀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전자 제품>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티톡! 보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10 장수의 비밀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40 다큐 시선	19:50 배워서 남줄라(재)
07:30 꼬마버스 타요	<장애아동의 엄마로 산다는 건>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로보가 풀리	<꿈꾸던 여름 캐나다 동부 4부 오! 해피데이>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랄랄라 뽀우	15:15 파프리카	<오지의 여름 4부 남도의 뜨거운 맛>
09:00 두다다콩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25:0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초계생채>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5:10 과학다큐-비온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두다다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48년생 마무리가 확실해야 한다. 60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느니라. 72년생 습관화 된다면 순기능을 하라. 84년생 눈에 띄는 하자가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p> <p>행운의 숫자 : 55, 16</p>	<p>42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54년생 번복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66년생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78년생 이럴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을 것이다. 90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p> <p>행운의 숫자 : 98, 39</p>
<p>37년생 뻥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 있느니라. 49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61년생 현명하게 살펴본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73년생 정곡을 찢러서 대응 해야겠다. 85년생 한 번 실수한다면 오점으로 남으리다.</p> <p>행운의 숫자 : 22, 99</p>	<p>43년생 한데 모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55년생 흐르는 물도 떠 주면 공덕이 되는 법이다. 67년생 마무리까지 확실해야 비로소 취하게 된다. 79년생 의연히 대처하다보면 길질을 부르게 된다. 91년생 염원해 왔던 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p> <p>행운의 숫자 : 80, 69</p>
<p>38년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라. 50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62년생 일방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4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86년생 핵심 가치를 좇는다면 반드시 실리가 따를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03, 67</p>	<p>44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하라. 56년생 완성도를 염두에 두어야겠다. 68년생 궁극적으로 정리되거나 통합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80년생 탄력이 불으면 서 증가 일로에 놓이리다. 92년생 여태까지 쌓아온 바를 평가받게 되리라.</p> <p>행운의 숫자 : 32, 01</p>
<p>39년생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답답할 뻔이다. 51년생 시작적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자. 63년생 정리하고 단장해 보자. 75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87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p> <p>행운의 숫자 : 46, 43</p>	<p>45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리다. 57년생 집착은 발목을 잡을 뿐이다. 69년생 실속이 있어 보이니 확실 하 붙잡아라. 81년생 진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93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해야만 할 시점에 놓여 있다.</p> <p>행운의 숫자 : 52, 71</p>
<p>40년생 목적에 부합하는 행보만이 성사에 일조 한다. 52년생 복잡한 관계에 놓인다. 64년생 주변의 여건에 좌우 될 필요는 없다. 76년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주의 하라. 88년생 구분지어 놓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56, 90</p>	<p>34년생 잘 선택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 하게 되어 있느니라. 46년생 상관이 없으니 개의치 말라. 58년생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라. 70년생 소모적임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82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p> <p>행운의 숫자 : 31, 93</p>
<p>41년생 원칙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리라. 53년생 영통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65년생 함께 할 때는 즐겁겠지만 일단 벗어나면 공허해지겠다. 77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89년생 욕망을 가릴 줄 알아야겠다.</p> <p>행운의 숫자 : 37, 55</p>	<p>35년생 유종의 미가 중이다. 47년생 간접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59년생 단칼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1년생 문젯거리로 비화 될 수 있다. 83년생 너무 깊이 개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p> <p>행운의 숫자 : 53, 7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